Life p/14
'아침식당'으로 변한 편의점

메트로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제2[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Life p/18
나들이철 육아용품 고르기

일회용 컵 줄입시다 15일 서울광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사랑'을 주제로 열린 '2014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일회용 컵 및 화분을 받아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스위스 도제식 수업' 도입한다

시범적으로 특성화高등 통해 일·학습 병행
청년고용 늘리기 일자리보다 취업에 '무게'

#사례1=스마트폰 전문가를 꿈꾸는 고등학생 신현국(가명·17) 군은 일주일중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3일은 IT업체로 출근해 기술 훈련을 받는다. 학교에서는 접하기 힘든 첨단 장비를 직접 만져보며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어 기술 훈련을 기다릴 정도다.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도 가능해 대학진학 공부에 짜들려 있는 다른 학교 친구들의 부러움까지 받고 있다.

#사례2=지난해 중소 바이오업체에 고졸 사원으로 입사한 박진희(가명·21) 씨는 이번 여름 가족들과 함께 동남아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 주는 근속 장려금을 100만 원이나 받은 덕분이다. 대기업만 고집하다 아직도 구직활동 중인 친구들을 보면 눈높이를 낮추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든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던 부모님도 이번 휴가를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다.

내년부터 이같은 일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취업 후진학'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에서 직장까지-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이나 뿌리산업 등 중소 중견기업에 입사한 고졸 취업자에게 1년 근속할 때마다 매년 10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인턴지원금은 줄이는 대신 인턴들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에게 220만 원,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 생산직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제조업 생산직은 지급액을 300만 원으로 늘렸다.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 20%, 6개월 30%, 1년에 50%로 차등지급하기로 해 장기근속을 유도키로 했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교육도 시범 도입한다. 내년 중으로 특성화고 3개교, 기업학교 4개교를 시범 운영한 후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에도 취업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특기병제'도 실시한다.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에겐 입대 전 기술 훈련을 면제하고 대학생도 특기가 있다면 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청년고용대책이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졸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센터장은 "이번 대책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고용훈련, 구직, 근속 유지, 전직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승환 직업능력개발원 박사도 "스위스식 도제학교는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훈련센터는 실무기술 습득을, 기업에서는 현장훈련을 유기적으로 실시해 시너지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이 원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투자 유도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한국 대표음식은 '치맥'

외국인 유학생 한식·드라마 선호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치맥'(치킨과 맥주)이 뽑혔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제17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앞두고 국내에 있는 523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으로 응답자의 44%가 '한국 음식'을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가장 인상 깊은 음식'을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32%가 '치맥'을 꼽았다.

이어 ▲비빔밥(23%) ▲불고기(18.6%) ▲삼겹살(14.2%) ▲떡볶이(6.6%) ▲비빔(6.6%) ▲삼계탕(4.3%)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경희대 측은 "비빔밥과 불고기 등은 이미 세계에 알려진 한국 음식이지만 치킨과 맥주가 가장 인상 깊은 음식으로 급부상한 것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식 외에 한국에 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는 드라마와 영화(36.4%), 아이돌 가수(9.9%) 등이 꼽혔다.

/윤다혜기자 yd##

더 완전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손잡은 김상곤과 김창호 김창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왼쪽)가 15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상곤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잘못된 관행 송구"

박 대통령 환골탈태 강조 … 남재준 원장도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증거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며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데 이어 이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시 강력한 문책방침을 밝힘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꼬리자르기'로 평가절하하며 남 원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인호기자 mkdm@metroseoul.co.kr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상한 도쿄지점' 무슨 일이?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이웃나라 일본 도쿄발 비보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불거진 은행권 도쿄지점 문제가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쿄지점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부실 가능성이 포착돼 현지 조치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도쿄지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최근 국내 시중은행 도쿄지점에서는 지점 관계자들의 자살 사건이 두 차례나 벌어져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모두 금융당국의 부당대출 조사와 관련있는 인물들이었다. 금융당국이 도쿄에 진출한 시중은행들의 부당 대출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면서 해당 직원들이 심적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런 사고가 잇따른 것은 일본 현지 교포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영업을 하면서 부당 대출을 하는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 은행들은 일본 현지 은행과 경쟁하기엔 아직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제2금융권처럼 고금리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내쫓아 거절된 신용도 낮은 현지 교민이 주요 고객이 될 수 밖에 없다. 한정된 교포나 재력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판국, 금융당국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때다. 하루빨리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한다.

7월 재보선 최대 20곳 '미니총선'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큰 폭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이미 박탈당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구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돼 국회의원의 결원이 예상되는 선거구까지 더하면 7·30 재·보선 지역은 20곳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에서는 15일 현재 3명의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후보로, 윤진식 의원은 충북지사 후보로 각각 결정됐으며 경기지사 후보도 남경필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중 한명으로 결정될 상황이다.

또 서울(정몽준), 부산(서병수·박민식), 대구(서상기·조원진), 인천(유정복), 대전(박성효), 충남(이명수·홍문표) 등은 경선이 진행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곳에서 현역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조현정기자

오바마 美 대통령 25~26일 방한

정상회담 북핵 공조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25~2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은 25일 오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자 한-미 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포괄적전략동맹 관련 방안, 북핵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동북아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국빈방문하며 한·일 방문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방문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한미 방위비 비준 국회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앞으로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또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됐다. /김승훈기자

뉴스&뉴스

ROTC 경쟁률 6대1 작년 두배 '껑충'

● 올해 학군사관후보생(ROTC) 3250여명 모집에 2만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05대 1을 기록했다고 육군이 15일 밝혔다.

이 같은 ROTC 경쟁률은 지난해 남성 ROTC 후보생 경쟁률 3.5대 1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NSC 상임위원에 靑 비서실장 추가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北 무인기 공동조사, 논의 가치 없다"

북한이 무인기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면서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행태는 이미 천안함 피격사건 때도 나타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발표한 진상공개장 내용을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자신의 도발을 은폐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미 밝힌 바 있지만 보다 명백하게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 공동으로 과학조사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추정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논란은 우리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것으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사채업자·SAT학원 세무조사

민생침해사범 113명 고강도 추적 나서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 수강료가 고액인 학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5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불법 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과세 소득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기관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얻고 탈루까지 한 불량식품 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며 탈세한 전주와 사채업자들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176명을 조사해 125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세종청사 현관 돌진한 트럭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 간 연결도로 직결 구사거 인근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 부부가 15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6-3동 현관문을 1t 트럭으로 들이받았다. 이들은 공주시와 세종시간 연결도로확장공사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사슴이 놀라 피해를 본다며 이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탕 출입 남아 나이 낮춰달라"

한국목욕업중앙회가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4~5세 아이들은 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 시기로 알려졌다.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추되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여론동향을 살펴보는 등 본격적으로 기준 손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만 5세'로 돼 있는 나이 기준을 '만 4세'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조기자 mikim@

사랑과 섬김의 세족식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에서 열린 '사랑과 섬김의 세족식' 행사에서 유병진 총장(오른쪽)이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연합뉴스

대입 자소서에 외부스펙 쓰면 '0점'

학생부전형 기재금지 명시

2015학년도 학생부 전형에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공통양식을 발표했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기재 시 0점 처리되는 항목은 우선 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 등 주요 외국어 어학성적과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인증시험 등 공인어학성적이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전국 초·중·고 외국어경시대회 등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의 교외 수상실적도 기재 금지 대상이다.

교육부가 명시하지 않은 항목 외에도 학교가 아닌 기관이 주최하는 교과명이 명시된 각종 대회의 수상실적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서류전형이 0점 처리된다.

교육부는 공인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실적이 아니지만 어학연수와 같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큰 사항은 0점 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부 스펙 기재는 학생부 전형에 한해 금지되고, 특기자 전형 등에서는 허용된다. /윤다혜기자 yd@

금천구, 공영주차장 신설

서울시 금천구는 독산4동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입체식 공영주차장(62면 규모)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기공식은 오는 18일 오후 3시 독산로78다길9 동심원 센부지에서 개최된다.

진드기 기피제 확인 당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15일 구민들이 진드기로 인한 질환 발생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드기 기피제 등을 올바르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 구매 시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성동구, '장애인의 날' 행사

서울시 성동구는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6일 마사라 경정공원에서 500여 명의 장애인과 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를 연다.

구는 레크리에이션과 다양한 게임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5) 씨 등 인출책 4명을 구속하고 국내총책 방모(20)씨와 또 다른 인출책 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8명으로부터 각각 245만~5500만원까지 총 1억3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이를 중국 총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위험하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에 속아 이들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19개와 대포 카드 25개, 현금 237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윤다혜기자

'국제보건대회' 준비 박차

안전보건공단이 내년 5월31~6월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산업보건대회'의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대회에는 전 세계 120개국의 산업보건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약 34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14일 울산 본부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사무국'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나섰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11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 규모의 행사로 '산업보건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전 세계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3년마다 열린다.

칠레 중부 산불 사흘만에 꺼

2000여채 불타 세계유산은 피해 없어

칠레 중부 항구도시 발파라이소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사흘 만에 거의 잡혔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산불로 긴급 대피했던 주민 1만여 명은 이날부터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번 산불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가옥 2000여 채가 불탔다고 당국은 밝혔다.

산불은 12일 오후 시 외곽의 라 폴보라 지역에서 시작됐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진 산불은 760㏊를 태웠다.

산티아고에서 북서쪽으로 120㎞ 떨어진 발파라이소는 칠레 제3의 도시로 꼽힌다. 특히 발파라이소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많다. 다행히 이번 산불로 세계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발파라이소 시 일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지역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에서는 이달에만 재난 지역이 두 차례 선포됐다. 지난 1일 북부 해안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 이 일대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조선미기자

"오바마는 흑인 아니다"

미국인 10명 중 5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흑인'이 아니라 '혼혈'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14일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오바마 대통령이 혼혈이라고 답한 반면 흑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27%에 그쳤다고 전했다. 특히 오바마를 흑인이 아니라 혼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백인(53%)과 히스패닉(61%)이 높았다.

흑인 응답자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55%가 오바마를 흑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모친은 미국 캔자스주 출신 백인이고 부친은 아프리카 케냐 출신이다. /조선미기자

죄를 씻기 위한 채찍질 엘살바도르 산페드로 인근 마을에서 14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성주간을 맞아 빨간색 악마 복장을 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있다. 고난주간이라고도 불리는 성주간에는 많은 가톨릭교인이 부활절을 앞두고 주의 전통적인 행사를 열며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은 거리 행사에서 채찍을 맞기도 한다. /AFP 연합뉴스

"부기장 휴대전화 켜져 있었다"

CNN, 미 정부 당국자 인용 "말레이 여객기 실종 직전 신호 감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실종될 당시 부기장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다고 14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당국자는 "말레이시아 페낭의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파리크 압둘 하미드 부기장의 휴대전화 신호를 감지했다"며 "이는 실종기가 항로를 벗어나 휴대전화 기지국에 전파가 잡힐 만큼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하미드 부기장이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언론이 여객기 실종 직전 하미드 부기장의 휴대전화 발신 신호가 잡혔다고 보도하자 당국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아흐마드 샤베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장관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한 결과 부기장의 휴대전화에서 신호 발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교통장관 대행은 "부기장의 휴대전화 신호 발신 여부는 경찰과 국제 조사 당국이 알아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섣불리 결론내리는 것을 꺼렸다.

/조선미기자 seoana@metroseoul.co.kr

"금융사고 재발땐 은행장도 엄벌"

최수현 금감원장 '상주검사역제' 도입 밀착 감독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최후 통첩을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산은·국민·농협·신한 등 주요은행장들을 소집해 내부 통제 강화 촉구를 위한 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 금감원장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하며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시장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융권 전체가 내부 통제 등 금융회사 운영전반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쇄신은 물론 윤리성 확립 등 의식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에 대한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은폐하거나 늑장 보고하는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기만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위해 최고경영진(CEO)이 앞장서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피해보상까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착 감독수단도 제시됐다.

최 원장은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등 금융회사를 밀착 감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자정노력이나 통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가능한 감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경영·인사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상벌 제도 운용과 함께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고객정보 관리와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점포장의 대출 전결권 조정과 취급 여신의 본점 사후심사 철저 등을 통한 해외점포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기업 구조조정과 여신관리를 강화해 법규 위반 및 리스크 취약 부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시 현장검사 등 기동검사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현지 시정조치를 활성화하고 제재요구 진행정지 신청제도 도입 등 피조치자 권리구제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 가능

신한카드 6월부터

앞으로 카드에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6월 1일부터 '마이신한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카드사들도 잇따라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용·체크 카드 등의 포인트는 5000 포인트 이상이 적립돼 있어야만 사용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1포인트만 있어도 1원으로 계산돼 연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포인트는 먼저 적립된 것부터 차례로 차감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회피관도 점검 등을 카드사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이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부터 카드사 회원 사망 시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도 잔여 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또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기간을 같이 개선하고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뱃속에 편안함을 선물하세요 요거트 브랜드 액티비아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전용 짜먹는 드링킹 요거트 '액티비아 UP'의 출시 행사를 가졌다. 이 제품은 지방 함량을 줄여 다른 간식거리와 함께 먹어도 부담이 적고 뱃속 편안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특허 유산균 액티레귤라리스가 담겨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개당 1500원(230ml). /액티비아 제공

"철강·조선·해운 힘모아 脫불황"

'동반성장세미나' 개최

최근 몇 년간의 경기 불황에 따라 동반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선주협회가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2014년 철강·조선·해운 동반성장 세미나'가 개최됐다.

15일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철강산업은 국내 철강재 출하의 약 20%에 달하는 539만톤의 철강재를 조선산업에 출하했으며 해상운송을 통해 약 5000만톤의 철강제품을 수출입하고, 철광석, 원료탄, 철스크랩 등 약 1억톤 가량의 철강 원료를 수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철강산업, 조선산업, 해운산업은 수요 창출의 고리를 통한 서로간의 상생발전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KDB 산업은행 김대진 박사는 '해운산업 주요 이슈 점검 및 향후 전망'이란 발표를 통해 "2014년 해운시황은 전년대비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나, 공급과잉은 소폭 축소될 전망이며 컨테이너선은 계선 선박 및 인도 예정 선박 대부분이 대형선박으로 점채적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고 벌크선의 경우 수급 불균형은 완화될 전망이나 물동량 증가율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중국 증시 투자해 볼까

홍콩·상하이 '동시효과' 뜨거운 관심

중국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홍콩 증시와 상하이 증시의 상호 투자가 시범적으로 허용되면서 중국 당국의 라이센스 없이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갈 여지가 커졌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 증시의 커플링(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면서 이번 홍콩-상하이 연계를 두고 국내 시장도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홍콩-상하이 주식시장을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 본토 증시는 중국 당국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등의 자격을 부여받은 기관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본토 50만위안 잔고를 보유한 개인투자자와 일반 기관투자자 등도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길이 열렸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하이 증시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현재 1%를 밑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본토 증시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효과를 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중국 본토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이 39%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지난 2012년 QFII 등의 투자한도를 대폭 늘였을 때 이후 한 달간 상하이종합지수가 5% 안팎으로 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중국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20일 1993선을 저점으로 반등해 최근 2130선까지 회복했다.

성연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홍콩-상하이 증시 연동으로 유동성이 많아 늘면 오는 하반기 중국 증시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시멘트, 철강, 보험 등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저평가됐던 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이 먼저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증시간 가격 격차도 점차 좁혀지는 추세다.

A/H 프리미엄 지수에 따르면 홍콩-상하이 증시에 모두 상장한 67개 종목의 가격은 그동안 홍콩 상장주식의 가격이 5%가량 비쌌으나 최근 3%까지 간극이 좁아졌다.

/김현정기자 hjkim@

대한민국 1등!

자동차 재사용(중고) 부품 쇼핑몰

자동차 재사용(중고)부품 Gparts에서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교환/환불 100% 보증 합니다.

자동차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사업

6년 이상 된 차량을 보유한 1200백만! 고객과 함께 할

- 부산/경남, 광주/전남 지역 총판 모집
- 전국 자동차 재사용(중고)부품 장착점 모집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EVENT

Gparts 회원가입 이벤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결닷컴 이벤트 페이지 참조

2001년 가격 25,000원

2008년 가격 50,000원

2007년 가격 30,000원

고객센터 1566-8209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퓨어스토리지 스캇 디센CEO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퓨어스토리지 제공

"올 플래시 삼성과 함께"

퓨어스토리지 기자간담회

"같은 비용으로 10배 높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

스캇 디센 퓨어스토리지 최고경영자(CEO)가 15일 내한해 플래시 스토리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통하는 플래시 스토리지는 기존의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 훨씬 가볍고 전력 소모가 적어 차세대 저장장치로 꼽힌다.

노트북과 같은 개인용 기기에는 플래시 스토리지가 보편화하는 추세이지만 기업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는 여전히 HDD의 비중이 크다. 하지만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이 속속 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하면서 B2B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디센 CEO는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 지사 차원에서도 인력을 늘려 연내 30명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퓨어스토리지는 지난해 매출이 700% 늘어나는 등 엄청난 성장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퓨어스토리지의 잠재력을 믿고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센 CEO는 "삼성전자 측과 자주 만나고 있다. 10년 뒤 기업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를 모두 플래시 메모리로 바꾸겠다는 '올 플래시' 비전을 삼성전자와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

"겨울왕국 엘사의 빙결 원리는?"

확 바뀐 삼성시험 화제…인문학 소양 강조

삼성그룹 인적성검사(SSAT) 문제가 화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삼성그룹 올 상반기 공채 필기시험 문제가 속속 복원되는 중이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10만여 명이 몰려 '취업 수능'이란 별명을 실감케 했다.

1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커뮤니티 '독취사'가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시자의 54.6%가 "시험이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가장 어려웠던 영역은 지지율로 '상식'(42.4%)이 꼽혔다. 이어 추리 영역, 공간지각 영역, 수리 영역이 거론됐다.

수험생이 이번 필기 시험을 어렵게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유형 변화다. 그동안 SSAT는 4지 선다로 나왔지만 이번부터는 5지 선다로 선택지가 늘어났다. 또한 단골 출제 유형이던 언어 영역의 사자성어, 수리 영역의 대소 비교와 시계 각도 문제 등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 해석과 추론 문제가 다수 출제돼 시간 안배에 어려움이 있었다. 생소한 도형 문제도 등장해 체감 난이도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상식 영역은 융합형으로 나와 화제를 모았다.

흥행 만화 '겨울왕국' 주인공의 빙결 능력을 과학이론에 접목해 묻거나 영화 '어벤저스' 등장인물 유형을 분석하게 하는 식이다. 경제학 용어인 '유동성 함정'과 어울리는 속담 연결 문제도 회자됐다. 올해 처음 등장한 역사 문제는 한국사부터 세계사까지 총망라됐다.

앞서 삼성그룹은 채용 개편안에 대해 "필기 시험 SSAT에서 단편적 지식평가를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직군에 지원한 한 응시생은 "문제 유형이 대폭 바뀌어 시험지를 받고 당황했다"면서 "도형 문제를 풀 때 고사장마다 펜 허용 여부가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행히 나는 펜을 쓸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unique@metroseoul.co.kr

수박·쇠고기 최대 50% 싸게 팝니다 15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관계자들이 농협유통 창사 19주년 기념 할인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창사기념일을 맞아 양재점, 창동점, 전주점 등 24개 하나로클럽·마트에서 다음달 11일까지 행사품목 정상가 대비 최대 50% 이상 할인판매한다. /연합뉴스

전방위 압박 이통3사 '초긴장'

미래부 조찬간담회

사진=손진영 기자 son@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전방위 압박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전날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뤄지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사중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의 최근 혼탁한 시장 상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압점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강변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16일에는 이동3사 CEO와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얼마 전 휴대전화를 3년 반 만에 바꾸면서 비싼 돈을 줬는데 나중에 싸게 살 수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 아쉽더라"며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 보조금 악순환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거론한 바 있어 이번 최 위원장과 이동3사 CEO간 간담회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 차관이 이동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경고한 것처럼 최 위원장도 각사 CEO에게 현 통신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달 이동3사 CEO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 마케팅 제동

반면 이처럼 잇따른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현재 순차적 영업정지 일정에 따라 단독 영업 중인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면서 이동3사도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단독 영업중인 LG유플러스로써는 이 같은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신시장이 정부 압박으로 인해 침체되는 것이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

한양대 사회교육원 무료 부동산 세미나

한양대 사회교육원이 '2014년 부동산투자 유망지역, 유망물건'을 주제로 무료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음달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 출구 재학원 건물 3층 멀티미디어실이다.

강의에서는 초보투자자와 주부, 그리고 은퇴자들이 시세 반값으로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는 경매를 알기 쉽게 실무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학 박사인 김재곤 교수의 차별화된 교육으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유망 물건을 분석, 추천하고 개별 상담도 실시한다.

문의)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20-4222 /박선옥기자 [illegible]

'HEALTH & BEAUTY WEEK' 박람회

25~27일 코엑스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4 국제건강산업박람회(Health Industry Expo 2014)'와 '201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COSMOBEAUTY SEOUL 2014)'가 25~27일 3일간 15개국 350여개사 600부스 규모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 B홀에서 개최된다.

'2014 국제건강산업박람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대한기능의학회·한국국제전시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로 28회째를 맞았다. '201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는 대한화장품협회·한국미용산업협회·한국국제전시가 공동 주최하고,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박람회다.

특히 올해 두 박람회가 통합 개최되며 Health & Beauty Week를 통해 다양한 제품이 한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캐나다·독일·핀란드·터키·폴란드·중국·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해외업체 개별 참가가 증가했고, 관련업계 국내·외 바이어의 사전 참관 예약이 늘어져 6만여명 이상의 참관객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300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사전 참관등록을 마쳤다.

박람회 참관객 사전등록은 20일까지이며 온라인 사전등록 진행시 무료로 전시회 참관이 가능하다. 기타 박람회 관련 문의는 한국국제전시 대표전화(02-761-2512)로 하면 된다. /김태균기자 ksh@

"따뜻한 봉사로 가족이 됐습니다"

신한금융 임직원 자원봉사 대축제 '감동'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9일 붓과 대패를 손에 쥐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신한금융그룹 자원봉사대축제의 하나로 친환경 목재 가구를 직접 주민에게 위해서였다.

신한금융은 이날 한 회장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CEO들과 임직원들이 저소득 지역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한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직접 제작한 가구를 70여 세대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신한금융그룹의 자원봉사대축제는 신한금융의 전 그룹사 CEO, 임직원 2만 4000여명과 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신한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그룹차원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신한금융그룹 봉사단'을 창단해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눠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존(共存)'과 전통적 가치와 문화 보존을 위한 '공감(共感)', 환경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공생(共生)'의 세 가지 테마로 총 22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06년부터 후원해 온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봉사 지원과 '1사 1촌 결연마을 일손 돕기', '내고장 문화재 가꾸기' 등도 포함되었다.

신한금융그룹 한동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서진원 신한은행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임직원들과 서울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손 가정 등 저소득가정에게 전달할 '행복한 가구만들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제공

특히 올해에는 환경보호 활동을 강화해 기존의 '남산 가꾸기', '북한산 보존활동' 외에도 '복사골 꿈의 숲 가꾸기', '푸른수목원 가꾸기', '노을공원 100개의 숲 만들기', '경기도 탄천 정화활동' 등을 신설했다.

아동복지 활동 또한 강화해 3년 째 진행중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1대1 매칭 '한땀도성갈기' 외에도 해외 빈민아동을 위한 '사랑의 핫픽스 티셔츠 만들기', '위탁가정 나들이 지원' 등을 추가했다.

한 회장은 "매년 봄에 열리는 신한 자원봉사대축제는 그룹의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봉사활동"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채대윤기자 aswell2013@metroseoul.co.kr

김용 무협 모바일로 즐긴다 '신조협려' 5월 CBT시작

온라인 게임 '완미세계'로 유명한 퍼펙트월드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진출한다.

중국 게임업체 퍼펙트월드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 모바일게임 MORPG '영웅의 뿔: 신조협려'의 비공개시범서비스(CBT)를 시작하고 2분기 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매니아 층이 있을 정도로 인기 무협작가인 김용의 소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게임은 뛰어난 게임성으로 이미 중국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바 있으나 원작의 아름다운 배경을 최고의 그래픽 효과로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5000명 동시 접속이 가능한 게임환경과 끊김 방지 기술도 탑재해 모바일게임에서도 온라인 게임에 버금가는 박진감을 느낄 수 있다.

/김승호기자 ksh@

"올해를 제2의 3D 원년으로!" LG디스플레이는 올해를 '제2의 3D 원년'으로 선포하고 3DTV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 제공

방통위 3기 출발부터 파열음

김재홍 위원 "정책현안 논의 부적절"- 여당 추천 위원 "현안 해결 시급"

방송통신위원회 3기가 본격 출범했지만 불완전한 구성으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3기는 현재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 이기주 허원제 김재홍 상임위원 등 4명이 구성됐다. 현재 방통위 3기는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질 논란으로 인해 임명이 보류되며 야당 추천 상임위원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온전치 못한 상황이다.

특히 방통위는 16일 이 같은 상황에서 첫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방통위 측은 각 상임위원에게 16일 오전 11시 방통위 3기의 첫 전체회의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구성과 운영에서 그 설치법에 규정된대로 여야 추천 위원 5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입법취지를 엄수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허여진 상황에서 향후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기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의 여권 추천 인원만으로도 개회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정상 출범과 합의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며 "만일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방송통신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한시바삐 전체회의 등 진행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우선 현 인원으로 각종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공석인 한 명의 야당 추천 위원이 임명되면 추후 의견을 첨부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 3기의 비정상 출범에 따른 파행은 4월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고삼석 내정자를 추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전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고삼석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삼권 분립 정신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라며 "방통위 비정상 출범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 같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 관련 법안의 통과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 내부에서도 각종 현안에 대해 재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출범 초기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방통위가 이 같은 사태를 잘 해결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

효성 임직원들이 15일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열린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 헌혈행사 7년간 5000명

효성이 15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마포 본사에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돼 2008년부터 7년째 계속되고 있다. 효성은 본사뿐 아니라 울산·구미·창원 등 주요 지방사업장에서 매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본사와 전국 사업장에서 7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특히 7년간 헌혈에 동참한 효성 임직원은 5000여 명에 이른다.

행사를 통해 모인 헌혈증은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서와 함께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돼 수혈을 필요로 하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사용된다.

한편 효성은 ▲병원학교 어린이 재활치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과학 꿈나무 양성을 위한 주니어 공학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등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세곤기자

20대 그룹, 계약직만 늘렸다

전년보다 15.5% 증가… 정규직은 제자리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직원보다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내 20대 그룹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계약직 직원 수는 1만2585명으로 전년 1만924명보다 15.2% 증가한 반면 정규직 수는 변동이 없었다.

회사내 전체 직원 중 계약직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워커힐호텔을 보유한 SK네트웍스로 무려 24.2%에 달했다. 계약직 직원 수가 가장 낮은 곳은 LG디스플레이로 6명에 그쳤고, 이어 SK하이닉스도 13명에 불과했다.

계약직 직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자 그룹이었다. 기아자동차는 2012년 23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5.2배 늘었고, 현대자동차도 1727명에서 3238명으로 87.5% 증가했다. 현대모비스도 103명이던 계약직이 200명으로 늘어 9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생산라인에서 산업재해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만 59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경우 퇴사후 계약직으로 1년 더 채용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20대 그룹의 정규직 직원의 증가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대 대기업의 정규직 직원은 2012년 42만7651명에서 지난해 44만524명으로 3.0%인 1만287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 직원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삼성물산(12.2%), 한국가스공사(7.0%), 현대모비스(6.2%), SK 텔레콤(6.0%) 등이었다. SK네트웍스와 LG디스플레이의 정규직 직원은 각각 6.3%, 2.9% 감소했고 삼성중공업(0.5%), KT(0.8%), 기아자동차(1.6%) 등의 정규직 증가율이 비교적 낮았다. /김세곤기자 ksg@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장애인에 맞춤형 자전거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은 15일 서울 서린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과 박광식 현대차그룹 부사장,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맞춤형 자전거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자동차 제공

한화, 다문화 고향방문 지원

한화충청지역봉사단 및 다문화가정이 호치민 다암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제공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충청지역 봉사단은 '한화와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외가방문 프로그램'을 14~19일까지 진행한다. 이 행사로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다문화 12가족 24명이 베트남 고향 방문의 기회를 얻어,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났다.

봉사단은 김승연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소속감과 엄마 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번 봉사를 마련했다.

또 봉사단 및 다문화가족 30여명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베트남 현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활동 및 의료지원 등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여성과 아이들이 외가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광 지원 및 치료지원 활동과 함께 호치민 지역의 역사적인 유적지를 찾아 엄마나라 문화체험 활동의 시간도 함께 했다. /김세곤기자

SK, 장애편견없는 행복한 동행

SK그룹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Sunny)'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성민복지관과 MOU를 체결하고, 장애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선다.

SK써니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역량과 재능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편견없는 행복한 세상 써니 투게더'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예술에 기반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아트 클래스'를 기획해 서울·인천·수원 등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써니는 성민복지관에서 미래의 아티스트를 꿈꾸는 장애 청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아트 클래스는 제1회 SK써니 해피노베이터 콘테스트 수상팀이 미국·영국 등 해외탐방 등을 통해 전문 인큐베이팅과정을 거쳐 개발된 양질의 프로그램이다. 향후 주요 특수학교 정규과목화 추진을 통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세곤기자

사업천국 '조지아'에 투자하세요

3조5천억 프로젝트 진행

전경련은 15일 전경련회관 최정단회의실에서 조지아 투자청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국내기업들의 조지아 시장진출 지원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승철 부회장과 기오르기 페타이아 조지아 투자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유럽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 조지아의 약 3조5000억원 규모(34억 달러) 수력발전소와 관광호텔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 전경련이 15일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조지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기오르기 페타이아 조지아 투자청장은 자국 정부가 추진하는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광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페타이아 투자청장은 조지아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터키 등 전력부족 인접국으로의 수출목적으로 다수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며, 추가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10M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문제를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흑해연안 휴양도시와 뛰어난 고산지대 경관으로 매년 자국 인구보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조지아는 6개 호텔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참여 기업에게 15년간 면세, 카지노 무료 허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지아 투자환경과 개발 프로젝트, 투자펀드 등 현지 금융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24개사가 참가했다.

전경련은 설명회 직전 조지아 투자청과 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조지아 시장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조지아는 인구 456만 명에 1인당 GDP가 5700달러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와 수교 20주년을 맞았고, 한국을 경제개발의 롤 모델로 삼고있다. /김형석기자

목·어깨 통증, 두통, 만성 요통… 디스크 질환 적신호!

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등 체형 불균형… 초기에 잡지 않으면 심각한 디스크로 진행

오랜 직장생활로 늘 목이 뻐근하고 양쪽 어깨가 무거운 느낌을 받아온 회사원 A양은 최근 두통과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손 저림 증상이 생겨 한의원과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이에 A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받고 완치됐다는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일자목이 오래돼 만연 비대칭과 거북목으로 변형됐다고 설명했으며 A양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디스크 중기 진단을 받았다.

진단 후 A양은 약물 요법이나 시술적 치료가 아닌 골격 구조를 직접 손으로 바로 잡는 도수치료와 뼈와 근육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운동요법을 통해 주 2회씩 치료받았다. 치료 3개월 후 A양의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통증에 따른 불편함은 질환이 발생하기 전과 같이 호전됐다.

또 늘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요통과 함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개운치 않는 느낌을 받아 의사 근처 병원에서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다리 당김 증상이 시작되면서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A양과 같이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방문했다.

이 원장은 요추 MRI 상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를 진단하고 간단하게 요추 신경 치료 주사로 치료했다. 이후 B씨는 척추 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일주일에 1~2회씩 요추 도수·강압 운동치료를 3개월 받았다. 현재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 위한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 구축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져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기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일시적인 증상의 호전만 주는 고리짝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주사 요법, 침치료 등만 시행하고 있다.

이승주(왼쪽)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배우 이종수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실시한다. 진단 후 조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인 환자들은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받은 후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는다.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는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배우 윤계상이 치료받았던 강남조이스병원의 대표적인 디스크 치료술은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통해 치료한다.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인 고주파 원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치원이 다른 시술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강남조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체계화시켰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홍대입구역 및 교대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3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 기자

언청이 수술부위 흉터, 모발이식으로 반전시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코밑 인중 주위의 수술 흉터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상당수는 선천성 언청이라고 알려진 구순구개열로 인한 흉터다.

이런 흉터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입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우울증이나 자신감 결여 등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또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비해 수술 후 흉터가 많이 남지 않게 됐지만 흔적이 없는 완벽한 재생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흐릿한 흔적이 남은 부위에 모근을 이식하면 흉터의 언청이 수술 부위를 감쪽같이 감출 수 있다. "이런 방법이 많은 환자들의 고민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라난 남성미 넘치는 수염으로 자연스럽게 재생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준규(사진) 모리지피부과 원장은 "뒷머리 부위 모발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술 부위에 모발을 수염으로 이식하면 언청이 수술 부위를 감쪽같이 감출 수 있다. 이런 방법이 많은 환자들의 고민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내 모발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모리지피부과는 머리 화상 흉터 및 외과적인 뇌수술 후 남게 되는 크고 작은 머리 흉터 재건과 난치성 탈모 질환 치료에 역점을 둔 병원이다. 또 오 원장은 개원 후 13년 동안 3500 케이스 이상의 모발 이식 수술 경험과 약 3300 케이스의 난치성 질환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모발이식 수술 없이 체계적인 치료만으로 2500여 케이스 이상을 완치시켰다.

/황재용 기자

교사 괴롭히는 직업병 '하지정맥류'

스트레칭·압박스타킹 등으로 예방 가능

교사는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 대부분을 서서 보내기 때문에 유독 다리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강남연세흉부외과가 6년간 460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6%가 다리 근육 경련(20%)·무거움(19%)·피로(17%)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특히 하지정맥류는 교사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다. 실제로 영국 북아일랜드 교육부는 교사 건강 체크리스트에 하지정맥류를 포함시켰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교사들이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이 질환을 꼽았다.

◆증상 나타나면 즉시 치료해야

정맥은 몸 각 부분의 혈액을 모아 심장으로 보내는 판막이라는 특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판막은 중력에 저항하며 안전하게 혈액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경우 혈관과 판막의 탄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 혈액이 혈관에 고여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혈액량 이상의 피가 몰리게 된다. 이때 피가 몰린 부분 혈관이 피부 위로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편소 식습관이나 유전 등의 문제로 정맥 판막의 탄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교사 외에도 미용업·유통업·요식업계 종사자들도 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군이다.

질환 초기에는 피부 위로 푸른 혈관이 비치거나 다리가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 질환이 한 번 발생하면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상이 가볍다면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며 증상이 심하다면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통해 완치할 수 있다.

김재영 강남연세흉부외과 원장은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서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다리를 가슴보다 높이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책상 아래 보조 의자를 두고 다리를 올려 두거나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문의의 진단 후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고 생활하면 정맥에 주는 부담을 줄여 질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뉴스&뉴스

'사노피 신장이식 포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제약사업 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가 최근 라마다 제주호텔에서 '사노피 신장이식 포럼 (Sanofi Kidney Transplant Forum)'을 개최했다. 포럼은 국내 만성 신장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궁극적인 치료 옵션인 신장이식의 현재를 짚어보고 신장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식 치료제 '졸레어' 승인

● 노바티스는 최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자사의 천식 치료제 '졸레어'를 H1-항히스타민 치료에 적절한 반응이 없는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에 대한 추가요법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바티스는 졸레어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유럽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시판할 계획이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발적, 부종,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중증의 피부 질환이다.

담배소송, 국민건강 위한 바른 길

기고문
박 혁 수
<서울시한의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지방법원에 담배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담배회사 간의 소송이 시작됐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소송 2건이 대법원에서 원고인 피해자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라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담배소송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쉽게 사라질 것이다.

흡연 피해자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다.

지금까지 담배소송이 가장 많았던 미국에서도 개인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그렇지만 지난 1998년 미국의 주정부들과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 간의 소송에서 2060억불(약 220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2006년에는 흡연이 니코틴 약물에 의한 중독이라는 사실과 담배회사들이 흡연자들의 중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니코틴 수준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온 사실이 인정됐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외 사례 등 폭넓은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이 담배회사의 도덕과 양심을 묻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첨단 국제병원' 청사진

이대의료원 2017년 준공 제2부속병원·의과대학 설계 확정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2017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준공할 예정인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의 설계안을 확정하고 조감도를 공개했다.

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5개 설계사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실시 설계 우선 협상권자로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으며 건축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설계안에는 ▲첨단 국제병원 ▲환자 중심의 전병실 1인실 및 원스톱 서비스 병원 ▲전문 진료센터 중심 병원 등 제2부속병원의 차별화된 특징이 담겨 있다. 의료원은 향후 제2부속병원의 미래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2~3단계 추가 증축까지 대비해 설계안을 결정했다.

특히 제2부속병원은 공간 운영 효율의 극대화와 환자 및 의료진 동선의 최적화를 위해 4개 병동이 한 개 층으로 구성되는 스퀘어(Square) 형태로 시공된다. ▲응급진료센터 ▲심혈관센터 ▲뇌졸중센터 ▲중환자실 등이 근접 배치된다.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해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검진센터 설립도 이번 설계안에 포함됐다.

이순남 원장은 "최우선적으로 진정 환자를 위한 병원을 고민했다. 우리의 새 병원과 의과대학은 자랑스러운 이화의 상징이자 환자 중심의 명품 병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2부속병원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실시 설계에 들어가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강서구 마곡지구에 지어질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제2병원 및 의과대학 조감도 /이화여대 의료원 제공

'아침식당'으로 변한 편의점

김밥 등 간편식 판매↑

최근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2인 가구의 급증과 근거리 쇼핑문화로의 전환 등 인구 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편의점이 아침 먹을거리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락 삼각김밥 등 편의점 간편식품의 매출이 매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GS25가 최근 3년간 아침 시간대(7~9시)의 도시락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FRESH FOOD)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년도 대비 2011년에는 31.9%, 2012년 36.2%, 2013년 41.6%로 증가폭이 커졌다.

주요 식사 대용식인 샌드위치와 주먹밥 김밥은 각각 36.7%, 27.6%, 25.4%의 매출 비중을 보였다.

이런 상황은 'CU(씨유)'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밥은 전년 대비 2011년 16.8%에서 2012년 10.9%, 2013년에는 12.4%로 3년 연속 10% 이상 지속적으로 신장했다.

주먹밥류인 삼각김밥은 2011년부터 3개년간 36.2%, 23.9%, 23.5%로 늘었다. 햄버거류는 23.6%, 30.1%, 23.6%로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다.

도시락의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도시락은 현재 CU에서만 하루 4만 여 개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3년 전년 대비 42.4%에서 32.6%, 51.6%로 신장세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정문일기자 jmoon@metroseoul.co.kr

경주용 차량 소재 여행가방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15일 프리미엄 남성잡화 편집매장 '로얄마일'에서 이태리 가방 명품 브랜드 '테크노몬스터'의 프리미엄 여행가방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 상품은 F1 경주용 차량의 차체에 쓰이는 고강도·경량의 카본파이버 소재로 제작돼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모든 상품을 이태리 가방 장인이 순수 개별 제작 하루에 한개씩만 생산되지 않고, 일본의 이세탄, 영국의 해롯 등 5개의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희소성이 높은 상품이다. /현대백화점 제공

'취향 비즈니스' 스타트업에 각광

쇼핑·문화 등 다방면 호평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기반으로 과잉정보에 지친 소비자를 위해 최근 취향을 사고파는 신(新) 비즈니스 형태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른바 '취향 비즈니스'를 모델로 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각광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쇼핑·여행·문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 1월 출시 후 10만 내려받기를 돌파한 쇼핑앱 티드(TIID)는 개인의 취향을 사고파는 취향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한 대표적인 업체다.

티드 이용자들은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내 상점'을 통해 자신의 취향대로 고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이용자가 내 상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수익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구조다.

특히 20~30대 사용자를 위한 해외 여성 상품부터 디자인 소품 등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품들을 구성해 출시 후 쇼핑 카테고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전문 포털 데모데이의 주간 'Top5'에 오르기도 했다.

여행 중개 플랫폼인 마이리얼트립은 현지 생활 경험이 풍부한 한국인 가이드가 여행 코스를 개발해 상품화시키면 여행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여행일정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여행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행을 할 수 있다.

가이드와 마이리얼트립이 8대 2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는 점과 엄격한 과정으로 가이드를 선발한다는 점이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김희정기자 kimee0104@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랑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 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 1555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 6422
www.primephil.net

shin young ok

어린이집 '빅스맘'의 내부 전경(왼쪽). 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빅스맘 제공

빅스맘, 프리미엄 어린이집 프랜차이즈로 화제

원장·교사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보육·교육에만 집중

최근 연일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프랜차이즈인 '빅스맘'(대표 김승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빅스맘은 원장이나 교사들이 복잡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보육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검증된 보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개념 프랜차이즈 어린이집이다.

특히 교육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이 아니라 자존감(self-esteem)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국가 표준보육과정에 자존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존감 있는 행복한 아이를 주제로 한 빅스맘 영유아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작은 행동에도 공감해주며 미숙한 부분은 교사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자립심을 키우는 방식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인다.

또한 다중지능이론과 몬테소리 과정을 기반으로 Infants(3~12개월)-Toddlers(13~24개월)-Twos(25~36개월) 등 각각의 성장 발달 상황에 맞춰 도입한 영유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역시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교사와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영유아의 감각과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빅스맘 이로마 키즈케어 프로그램'이 있다.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인 '빅스맘 페스티벌' 역시 아이들의 풍요로운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과 안전 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업체 측의 말이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가방, 도시락 등을 철저히 검증된 상품으로 제공하고 유러피안 스타일의 다양한 색깔을 활용한 공간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빅스맘의 장점은 원장과 교사들이 최대한 보육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들은 국가지원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나 회계처리 등으로 보육, 교육에 실질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렵다.

빅스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 마케팅 등 모든 운영업무를 지원해 원장이나 교사가 안심하고 보육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런 지원과 함께 가맹원을 수시로 방문해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환경·식단 등을 점검하고 원장에게 결과를 알려줘 최고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일 빅스맘 대표는 짐보리와 키즈아일랜드 등 국내외 유수의 유아 전문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영유아 교육 전문가다.

김 대표는 "최근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잇따르는데 빅스맘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검증된 보육시설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개념 어린이집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문의 1661-2443 /김학철기자

"내 아이도 TV속 키즈 패션 입혀볼까"

TV 출연 아동 따라잡기

최근 MBC '일밤-아빠! 어디가?',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셀럽키즈인 하루와 민율이의 스타일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고 있다.

'아빠 어디가'에서 민율이가 착용한 오렌지 컬러의 백색 윈드브레이커는 방수 방풍 및 발수 기능이 우수하며 소매 끝과 부분에 매시 소재를 사용해 통풍이 잘 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베이지톤 포인트로 세련된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스판 소재의 면 팬츠나 청바지와 매치하기에 좋다.

민율이는 또 독특한 디자인의 부엉이 메쉬캡과 신축성이 좋은 웰딩 포켓 팬츠를 함께 매치해 방송에서 귀여운 매력을 뽐냈다. 이 제품은 방송이 나간 이후 매장에 문의가 쇄도하며 판매량이 방송 전과 비교해 모두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세르반 측은 전했다.

아우터로 원색의 바람막이 점퍼를 선택했다면 이너는 봄 느낌이 물씬 나는 파스텔톤의 컬러를 매치해 화사함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이 우터보다 좀 더 [illegible] 프린트와 패턴을 넣어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부엉이, 여우, 나무, 나비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도 세련된 스타일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루가 착용한 루즈 핏 래글런 맨투맨 티셔츠는 북유럽 감성의 일러스트 프린트가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방송에서처럼 그레이 컬러의 도트 패턴 팬츠와 매치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레깅스나 데님 스커트와 함께 입어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다.

민율이의 원 포인트 그래픽 될오버는 코튼 하이 게이지 원사 사용으로 촉감이 부드럽고 얼룩새, 무스 등 동물을 모티브로 활용했다. 소매에서 몸판으로 연결되는 동물 프린트는 흔히 볼 수 없는 문양으로 시선을 잡기에 충분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김학철기자 kimc0514@

나들이철, 육아용품 매출 '쑥쑥'

간편 영양식·포켓 세정제 등도 선뵈

꽃피는 계절을 맞아 도심을 떠나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 단위 나들이족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들이철 필요한 유아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의 매출이 상승하는 등 시즌 특수를 맞고 있다. 롯데아이몰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카시트는 16%, 유모차는 30% 신장해 유아 외출용품 부문에서 매출이 총 24% 증가했으며 4월에는 더 많은 매출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가족 나들이는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만큼 최근에는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카시트를 필수로 챙기는 추세다. 순성산업 관계자는 "카시트는 국내 및 국제 안전 인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인지를 인증하는 안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의 연령과 몸무게에 맞는 제품 선택과 올바른 장착법을 익히고 설치하면 더욱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순성산업은 기존 인기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2014 데일리 카시트' 5종을 출시했다. '데일리 오가닉 카시트'는 기존 4종에서 새로운 컬러와 통기성이 우수한 에어매쉬 소재를 확대 적용한 2종을, '데일리 베이직 카시트'는 동물 모양 패턴이 더해진 3종을 새로 선보였다.

나들이나 여행을 떠날 때 안전 못지 않게 걱정되는 것이 바로 먹거리다. 어른과 아이 먹거리를 따로 준비하는 것도 큰 고민이 되다 보니 휴대성을 강화하고 위생과 영양을 겸비한 유아 먹거리도 유용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퍼스트밀'은 분말이 아닌 액상분유 형태의 제품으로 젖꼭지 모양의 수유캡지만 끼우면 바로 먹일 수 있다. 보령메디앙스의 '바삭바삭한 과일칩'은 과일 그대로를 동결 건조해 영양손실을 최소화한 영양 간식으로 휴대도 간편해 아이들 외출 간식으로 인기다.

또 나들이 시에는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위생용품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CJ라이온의 포켓용 손 세정제 '아이 깨끗해 크리미 포켓솝'은 비누를 얇은 종이 시트 형태로 만들어 휴대가 간편하다. 호수의나라 수오미의 '순둥이 미니'는 기존 휴대용보다 작은 사이즈가 5매 들어있어 아이와 함께 작은 놀이터에 갈 때나 가벼운 나들이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해련기자 hjung0504@metroseoul.co.kr

위기의 미래, 知性이 대안

'공존 미래' 시스템 변화 중요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규모로 변화할 것이다. 이런 '초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과 분석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앨 고어 우리의 미래

앨 고어/청림출판

그 중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미국의 전 부통령인 앨 고어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변화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의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며 정치·사회·과학·경제를 넘나들며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현재 세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상호 연결성이 높아진 세계 경제 ▲인터넷과 통신망 발달을 통한 디지털 혁명 ▲세계 권력의 중심축 이동 ▲한계를 넘어선 성장 ▲생명공학의 발달 ▲인류 문명과 생태계 간의 관계 변화 등 총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경계가 사라진 세계 경제는 아웃소싱과 로보소싱 그리고 탈물질화로 인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로 인한 특권층의 권력 독점은 디지털 혁명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정보의 통제, 인간성의 획일화,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산적해있다.

또 자원 고갈로 인해 성장의 한계가 오고 '화염대 위에 서 있는' 지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 이렇게 고어가 전망하는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그는 인류의 지성이 공존의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는 시스템이 통제력을 상실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류 문명은 먼 길을 걸어와 이제 갈림길에 도달했다'.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 문명이 막을 내릴 수도, 또는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 책을 통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혜인 기자 hyein0404@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어린이

처음 만나는 고사성어

도서출판/미래주니어

어린이에게 글쓰기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고사성어와 속담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책은 이 진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야기 속에 선조들의 재치와 삶의 지혜까지 담고 있다.

자기계발

긍정이 멘토다

정근화 외/블랙에너지

긍정을 통해 몸소 행복한 삶을 증명한 36인의 명사들이 자신의 도전과 성공, 웃음과 행복을 소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멘토인 긍정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버거운 삶이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말공부

조윤제/흐름출판

저자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말의 크기와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얘기한다. 즉 말이 곧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말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게다가 적은 지혜의 정수로 남은 역사 속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말공부뿐만 아니라 사람공부, 더 나아가 인생공부의 방법과 가치를 알려준다.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가

한봉주/이담지식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 당장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변화에 중독 돼 보라고 조언한다. 변화의 목표를 잘게 잡아 성취감에 희열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아울러 이 책은 진정한 '남과 다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차기다움을 발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취업 수험서

삼성은 독종을 원한다

김기현/미르

저자는 책을 통해 그간 어렴풋이 알려졌던 삼성 입사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SSAT는 오답에 마이너스 점수가 책정되니 찍지말라, 단기 이벤트 식 경험을 나열하는 것은 금물이다. 면접 시 B등급을 기준으로 7단계로 나뉘는데 B등급 이하가 하나라도 있으면 탈락이다 등 살아있는 삼성 입사 정보가 공개된다.

건강

서재걸 슈퍼유산균의 힘

서재걸/위즈덤하우스

국내 1호 자연치료 전문의인 저자는 살만 몸속을 치료하기 위해 슈퍼유산균을 강조한다. 체질에 따른 유산균제 복용 수기와 방법, 건강 보충제인 유산균제 및 비타민제의 올바른 복용법, 유산균 고르는 법 등 유산균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책은 유산균 생활법을 통해 질병없는 건강한 삶으로 독자를 안내할 것이다.

송준혁 박사의 카툰 척추 설명서

송준혁/좋은땅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의 신경외과 전문의 송준혁 박사가 척추 치료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이다. 평소 환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과 다양한 치료법,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저자의 노하우를 담아 설명하고 있으며 사진과 그림으로 구성돼 이해하기 쉽다.

역사

세계사 콘서트

이호성/지식갤러리

세계사를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시각이 아닌 새로운 해석으로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를 지중해 세계의 일부로 해석하고 17세기 과학혁명을 포스트모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등 역사학의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

어느 물리학자의 비행

로버트 해리스/RHK

제네바의 증권가를 배경으로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금융 스릴러다. 금융 시장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백만장자가 된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알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 안의 공포를 묘사하고 있다.

책 속 한 컷

인생을 이야기하는 신발 한 켤레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행적과 성품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깨끗한 신발에 뒷굽만 유난히 닳았다면 성미가 급한 사람, 굽이 닳지 않았지만 얼룩이 많이 묻은 신발은 주인이 모르게 가으름을 피울지도 모른다. 오늘은 '구제다, 빈고다'해서 일부러 헤진 신발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 신발은 ... 수 ... 있다. 그저 어디서 ... 어디가 ... 갔다. - 휴먼스 오브 뉴욕 (브랜던 스탠턴/현대문학) 중 -

상사의 개수작질에 돌직구를 날려보자!

화제의 책

상사의 개수작질

한혜의/책우소

상사는 홍대리에게 벼락는 커녕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더욱이 홍대리는 회의가 끝나면 본인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이번 달 매출 계획이 10만 원입니다, 나는 박블레입니다'를 10회 반복해서 외쳐야 했다. 서열 3위의 홍대리가 부하 직원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이 무슨 개망신인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처럼 상사에게 개망신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억이 선명하다. 진심 상사를 만나면 온갖 폭언과 인신공격, 가족까지 싸잡아 들먹이는 모욕적인 인격모독, 업무 지적질, 때로 핸박질에 시말서와 갑궁질을 수도 없이 당한다. 조직에서는 직급이 깡패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더욱이 꼼은 상사가 가져가고 책임은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며 상사의 책임지는 모습도 보기 힘든 때가 많다. 하지만 이젠 이런 악질 상사의 개수작질을 당당하게 말해 직장에서 상사들의 못된 개수작질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책에 2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로서의 답전 충고와 조언을 담고 있다.

특히 책은 직장 상사라는 늑대의 탈을 쓰고 무조건적인 명령과 지시를 일삼으며 저지르는 폭언과 폭력의 가혹한 스트레스가 모두 불법임을 일깨우고 있다. 삼저가 나도록 말이되는 상사의 개수작질 버르장머리에 한 번은 눈감고 두 번째는 돌직구를 날려보자. 부하 직원들의 건투를 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훤칠한 키에 중저음의 목소리, 강렬한 눈빛을 가진 배우 최진혁(28)은 2006년 KBS2 '서바이벌 스타 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가 주연을 맡기까진 8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걸렸다. 최근 종영한 tvN '응급남녀'의 주인공 오창민을 연기한 그는 지난 시절의 한이라도 푸는 듯 '링거 투혼'을 펼치며 모든 것을 쏟아냈고 이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지민 기자 (ancjsm@metroseoul.co.kr)

'응급실' 나왔더니 ★문호 활짝

오디션 대상 후 8년 무명생활
'화무쌍' 이미지 앞으로 '쭉'
망가지는 역할 두렵지 않아

◆ 링거투혼? 다 같이 아팠죠"

'응급남녀'의 배우들은 촬영 기간 내내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응급실 세트장에 갇힌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밤샘 촬영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심지어 세트장 안에서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해 배우·스태프 가릴 것 없이 모두 한 번씩 크게 앓았다고 한다.

그는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연기하는 내내 행복했다. 근데 13회 촬영 때쯤 너무 아파서 도망가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물론 책임감 때문에 그러진 않았다"며 촬영 당시를 회상했다.

"만약 뒤에서 큰 개가 쫓아오면 평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응급남녀' 촬영도 그랬어요. 졸리고 피곤하니까 얼른 찍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연기가 영원히 기록되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찍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죠."

◆ '응급남녀' 창민의 성장기

'응급남녀'의 오창민은 여성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할 로맨틱 코미디의 남자 주인공이었지만 초반엔 '밉상'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졌다.

처음 맡은 주인공인데 마음 편하게 속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작품을 선택할 때 광고 이미지나 제 스스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1회 촬영하고 나서야 창민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걱정되더군요. 여자한테 막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위험하단 걸 깨달았죠."

하지만 첫 주연 캐릭터였던 만큼 오창민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창민이가 성숙해지는 과정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또 입체적인 캐릭터라서 보여드릴 게 많아서 좋았어요. 캐릭터 연구를 해서 대본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도 제 감정을 실어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노래 바보연기도 OK

그는 드라마 '괜찮아, 아빠 딸' '구가의 서' '상속자들' 등 자신이 출연한 작품의 OST를 부를 정도로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한다. '응급남녀'에서도 송지효를 위해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불러 여성 시청자들을 사로잡기도 했다. 노래 부르는 최진혁은 누가 봐도 멋지다. 하지만 최진혁은 "멋있는 모습만 고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말아톤'의 조승우, '맨발의 기봉이'의 기봉이를 연기한 조승우·신현준 선배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인기 연습 삼아 많이 따라 하기도 했고요. 언젠간 그런 캐릭터도 맡아 보고 싶어요."

◆헛되지 않은 지난 날

'응급남녀'의 촬영이 끝났지만 최진혁은 아직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했다.

"원래 제가 몸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팔굽혀펴기 같은 걸 하는데 지난 석 달 동안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최진혁의 바쁜 일정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우선 다음 달 방영 예정인 tvN '꽃할배 수사대'에서 이순재의 젊은 시절로 깜짝 등장해 오창민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같은 회사 선배 정우성과 함께하는 영화 '신의 한수'도 올 여름 개봉된다.

"영화 '신의 한수'가 개봉하면 아마 많은 분이 놀라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맡아왔던 역할과 전혀 달라 이미지가 또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땀 그대로 쉴 틈 없이 달리고 있는 최진혁은 "지난 1~2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을 했다"며 "모두 헛되지 않아서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사진/김상곤(키클로드크리에이티브) 디자인/박은지

tvN

회춘누아르

꽃할배 수사대

짱짱맨 할배들이 떴다!

매주 금밤 9시 50분 · 5월 2일 tvN 첫 방송

제작 SSD 이순재, 변희봉, 장광, 김희철, 이초희 김응수 박은지

싸이

레이디 가가

싸이 vs 가가 잠실벌 빅뱅

YG패밀리, 세계적 팝스타와 8월 15~16일 릴레이 콘서트

싸이·빅뱅·2NE1 등 YG 패밀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릴레이 공연을 펼친다.

YG 패밀리와 레이디 가가가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은 'AIA 리얼 라이프: 나우 페스티벌 2014'라는 타이틀로 8월 15일과 1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 공연은 YG엔터테인먼트와 세계적인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 AIA생명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 YG 패밀리와 레이디 가가는 각각 15일과 16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등장해 한여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공연 첫날인 15일에는 '강남스타일', '젠틀맨'으로 전세계 음악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싸이의 12개국 24개 도시에서 총 48회 공연으로 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빅뱅이 출연한다. 또 K-팝 사상 최고 기록인 빌보드 앨범차트 61위를 기록한 2NE1, 정식 데뷔 이전부터 전세계 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신인 그룹 위너 등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무대를 꾸민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레이디 가가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레이디 가가는 지난 월드투어로 전 세계적으로 400만 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했다. 지난 2012년 처음 내한해 해외 아티스트의 잠실종합운동장 공연 최초의 매진 기록을 세우는 등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팝스타다.

레이디 가가는 지난 투어 당시 첫 공연지로 서울을 선정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레이디 가가의 2014 투어 일정 중 아시아 공연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열릴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의 티켓은 예스24와 G마켓에서 구매 가능하다. 1인 4매에 한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조기 예매는 17일 오후 8시부터며 일반 예매는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유선희기자 yoo@metroseoul.co.kr

술 취해 헤어진 연인에게

주니엘 이별송 '다음날' 공개

가수 주니엘(사진)이 용감한 형제 데뷔 10주년 프로젝트 앨범의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다.

15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주니엘이 새 이별송 '다음 날'을 16일 공개한다"며 "'다음날'은 술에 취해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의 기억을 실감나게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별을 소재로 주니엘이 자신만의 색깔로 노래를 소화해냈다는 평가다. 주니엘은 '다음 날'을 통해 임창정·포미닛-에브리싱·씨스타·일렉트로 보이즈에 이어 용감한 형제 데뷔 10주년 프로젝트 앨범 주자로 나서게 됐다.

한편 주니엘은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에 출연 중이며 SBS 파워FM '케이윌의 영스트리트'와 KBS 쿨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의 고정 게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창준기자

엑소 한·중 동시 '중독'

21일 새앨범 양국서 공연

"대세돌' 엑소가 두 번째 미니앨범 '중독'으로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공략한다.

15일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가 21일 두 번째 미니앨범 '중독'을 발매한다"며 "엑소-K(위 사진)·엑소-M(아래)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활동하는 그룹인 만큼 한국어로 구성된 엑소-K 버전과 중국어로 구성된 엑소-M 버전으로 앨범을 내놓고 한·중 동시 활동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니앨범에는 타이틀곡 '중독'을 비롯해 '월광', '썬더' 등 다양한 장르의 신곡 5곡이 수록됐다.

한편 엑소는 15일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컴백쇼를 시작으로 18일 KBS2 '뮤직뱅크', 19일 MBC '쇼! 음악중심', 20일 SBS '인기가요' 등 한국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19일엔 중국 컴백 기자회견과 더불어 중국 최초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 CCTV '글로벌 중문음악 방송'에서 첫 무대를 펼친다.

/정창준기자

거미 봄 감성 달콤 R&B 선사

내달 4년 만에 새 앨범

가수 거미(사진)가 다음달 컴백한다.

15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거미가 5월 초 미니앨범을 발표한다"며 "지난 2010년 발매한 미니앨범 '러브리스' 이후 4년 만의 컴백이다. 거미만의 탁월한 R&B 감성에 봄옷을 입은듯 더욱 달콤한 음악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미는 앨범 발매 후 6월 7일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솔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미는 "가장 행복하고 밝은 5월인 만큼 공감 가는 가사와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들로 찾아 뵙고 싶다. 오랜만에 솔로 앨범을 내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거미는 최근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주군의 태양', '쓰리데이즈' 등의 OST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휘성과 함께했던 전국투어 콘서트, 윤제·조 김도훈 프로젝트 앨범 작업까지 다양한 활동에서 음원강자의 저력을 과시했다.

/정창준기자

싱글 라이프 엿보는 TV

MBC '나혼자 산다' /MBC제공

올리브TV '셰어하우스' /CJ E&M제공

1인가구 소재 '나 혼자…' '셰어하우스' 방송

1인 가구 453만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싱글 라이프를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제작되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MBC '나 혼자 산다'는 노홍철·김용건·김민준·전현무·파비앙·김광규·데프콘·육중완 등이 각자의 집에서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취생부터 노총각, 돌싱남까지 다양한 조합의 이들은 '무지개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원 정기 모임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혼자 지낸다.

무지개 회원들은 여장부터 자녀까지 소박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외롭지 않게 혼자 사는 법을 알려준다.

한편 오는 16일 첫 방송되는 올리브TV '셰어하우스'는 혼자 살지 말고 같이 모여 사는 것을 권한다.

공동주거 리얼리티 '셰어하우스'는 한 지붕 아래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인 '식구'라는 단어의 뜻에 맞게 이상민·손호영·최희·천이슬·최성준 등 9명의 입주자들이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주택에 모여 서로를 제2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셰어하우스'는 각자의 방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다.

연출을 맡은 이수호 PD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 단순한 프로그램"이라며 "'셰어하우스'를 통해 새로운 식구가 생기는 과정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민기자 [email illegible]

'방황하는…' 상영 금지 논란

청솔학원 가처분 계획

청솔학원 측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사진)의 제작·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 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CJ엔터테인먼트 측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CJ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어제 청솔학원 측과 만났다.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주)이투스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청솔학원은 공식 블로그에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묘사된다. '방황하는 칼날' 측은 청솔학원 상호를 아무런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청솔학원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올렸다.

'방황하는 칼날'은 한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아버지, 그리고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의 가슴 시린 추격을 그린 작품이다. 14일 4만4494명의 관객을 동원해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박진환기자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옥택연 /KBS 제공

tvN 금토극 '갑동이' 이준 /tvN 제공

'발연기' 옛말… 드라마 핵심 부상

옥택연·이준 승리 바로 등 아이돌, 명품배우로

연기하는 아이돌이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연기돌은 어색한 연기를 펼쳐 개그 프로그램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옥택연·이준은 드라마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승리·바로는 신스틸러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룹 2PM의 옥택연은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에서 강동석(이서진) 동생 강동희 역을 맡았다. 강동희는 동네에서 제일가는 주먹이지만 사고로 7살 지능에 멈춰버린 누나 강동옥(김지호)을 위해서는 한없이 사려깊은 상남자다. 옥택연은 함께 출연하는 김희선과 사투리 선생님으로 꼽을 정도로 실감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해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KBS2 '신데렐라 언니' '드림하이' 등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참 좋은 시절'에선 다양한 인물관계 속 강동희의 존재감을 잃지 않아 호평받고 있다.

그룹 엠블랙의 이준은 tvN 금토극 '갑동이'에서 사이코패스 역으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예능에선 허당으로 재미를 주고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선 진중하고 묵직한 역할을 소화하여 반전 매력을 선사한다. 영화 '닌자 어쌔신' 단역을 시작으로 '배우는 배우다'를 통해 주연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아이리스2' 이후 1년 만에 출연한 드라마 '갑동이'에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바리스타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을 감춘 채 살아가는 류태오를 맡았다. 지난주 방송에선 서늘한 눈빛과 속삭이는 대사 처리로 안방에 섬뜩함을 전해 화제가 됐다.

승리와 바로는 작품에서 신스틸러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그룹 빅뱅의 승리는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를 통해 국내 첫 정극 도전에 나섰다. 충청도 출신에 멕시코에서 온 119 구조대원 테디서 역으로 지난 3회부터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테디서는 사투리와 영어를 섞어 사용해 다소 정신없어 보이는 캐릭터다.

그러나 활발한 성격인 승리와 부합한다는 평가와 함께 그는 데뷔 합격점을 받았다. 지난 3월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승리는 "가수도 음악에 맞춰서 연기하는 것이고 작품에 녹아드는 역할을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룹 B1A4의 바로는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에서 6세 정신연령을 가진 지적장애인 기동규 역을 맡아 기동찬(조승우) 조카로 연기를 펼치고 있다. 그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순박한 사투리 연기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엔 화려한 아이돌 외모를 버리고 바가지 머리에 지저분한 노란 운동복 차림으로 작품의 반이상을 지내며 지적장애인 연기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해 연기자 바로의 성장을 보는 재미도 선사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email illegible]

류승룡·이성민 영화 '손님' 투톱

대세 중년 류승룡(왼쪽 사진)과 이성민(오른쪽)이 한 영화에서 만난다.

류승룡과 이성민이 영화 '손님' 출연을 결정했다고 각자의 소속사 측이 15일 밝혔다.

두 사람의 출연은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로 2000만 관객 미상을 동원한 류승룡과 최근 '방황하는 칼날' '베테랑'에 주연으로 캐스팅돼 급부상하고 있는 이성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손님'은 그림 형제의 동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각색한 작품으로 한국전쟁 직후 수상한 시골 마을에 정착하게 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류승룡은 피리로 쥐를 쫓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 우룡 역을 맡는다. 이성민은 마을 촌장으로 출연해 류승룡과 극중에서 대립한다.

이한 감독의 '청춘만화' 조감독 출신인 김광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손님'은 다음달 크랭크인 예정이다.

한편 류승룡은 30일 개봉 예정인 '표적'에서 액션 연기에 도전하며 이성민은 10일 개봉한 '방황하는 칼날'에서 첫 스크린 주연 신고식을 치렀다. /박진환기자

이용대 다시 亞게임 금빛 스매싱

도핑 파문 자격정지 철회… 협회 행정실수로 징계완화

도핑검사 절차 위반으로 1년 자격정지를 당한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사진)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의 징계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이용대는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약물 검사 대상에 올랐으나 WADA에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아 BWF로부터 1월 24일부터 1년간 자격정지를 당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실수로 빚어진 일로 협회도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협회는 행정 실수로 선수가 피해를 본 만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는 한편 세계배드민턴연맹에 선수들의 선처를 호소하며 징계 완화를 요청했다.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2013년 이용대의 검사 실패와 입력 실패와 관련된 모든 위반 기록은 삭제하기로 도핑청문위원단이 결정했다"며 "이용대에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그들에게 부과된 제재는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정으로 자유로운 훈련, 경기활동, 국제대회 참가 신청 등이 가능하다"며 "이용대는 BWF 선수위원회 위원 자격을 회복하고 선수위원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2월 14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해 BWF에 재심을 요구했고, BWF는 재심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WADA가 BWF에 항소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며 항소를 하더라도 새로운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이용대의 아시안게임 출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대와 함께 징계를 받았던 김기정의 징계도 함께 철회됐다. 이로써 한국 배드민턴의 아시안게임 금사냥에도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이용대는 유연성(국군체육부대)과 남자 복식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금메달을 기대해볼 수 있다.

신계륜 회장은 "이용대가 전화통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며 "3주 후 백물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면 이용대가 직접 자신의 심경, 지지 앞으로의 포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호세·가르시아 다음은 히메네스

롯데 스타 용병 계보 이을듯

루이스 히메네스(32·베네수엘라·사진)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흥행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펠릭스 호세, 카림 가르시아 등 한국 선수들의 인기를 능가하는 스타 용병 타자를 배출했던 롯데는 가르시아 이후 4년 만에 스타성을 겸비한 히메네스의 영입으로 관중몰이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허벅지 부상을 딛고 뒤늦게 10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첫 출전한 히메네스는 드라마틱한 신고식으로 홈 팬들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1-1 동점인 10회말 1사 1, 2루에서 우월 3점포를 날리며 외국인 타자로는 최초로 한국 무대 데뷔전 끝내기 홈런 기록을 세웠다.

열광적인 롯데 홈팬들은 목이 쉴 정도로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원 웨이 티켓'을 번안한 '날 보러 와요'라는 제목의 히메네스 응원가는 벌써 사직야구장의 히트곡이 됐다.

롯데 응원단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롯데에서 뛰었으면'이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이 곡의 뜻처럼 히메네스는 여러 야구팀을 떠돌았고, 마침내 롯데에서 새로운 야구인생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999년 미국 프로야구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에 입단한 히메네스는 2002년 볼티모어 오리올스, 2004년 LA 다저스에서 차례로 뛰었다. 이후 미네소타 트윈스·보스턴 레드삭스 워싱턴 내셔널스·시애틀 매리너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 등 5년간 무려 6개 팀을 거쳤다.

미국 마이너리그인 도미니칸 리그가 열리는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해 3개국 9개팀에서 활동하다 롯데에 둥지를 틀었다.

롯데 측은 "방출, 트레이드 대상자에 자주 오르다 보니 위축된 느낌도 있었다"며 "히메네스가 편안한 마음으로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선수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한국 프로야구의 문화에 히메네스가 놀란 눈치"라며 정착 후 더 큰 활약을 기대했다.

/유순호기자

손연재 "인천 금메달 따야죠"

월드컵 메달 걸고 귀국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사진)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잡았다.

2014 코리아컵 국제체조대회 출전을 위해 15일 귀국한 손연재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인종합 금메달이 올해 목표"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손연재는 8일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메달을 목에 걸고, 리스본 월드컵에서 4관왕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둬 9월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그는 "코리아컵이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해서 좋다"며 "인천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연재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개인종합 동메달을 따며 한국 리듬체조에 아시안게임 개인종합 첫 메달을 안긴 바 있다. 현재로서는 아시아권에서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그러나 손연재는 "아직 중국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르니 경기가 열리는 10월이 되봐야 금메달 가능성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손연재는 19~2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코리아컵에 출전한 뒤 26~27일 리듬체조 갈라쇼 'LG휘센 리듬 올스타즈 2014'에서 국내 팬들과 만난다.

/[illegible]기자

프로야구 전적 15일

■잠실

팀	1-3	4-6	7-9	10-11	계
넥센	000	001	000	02	3
LG	000	100	000	00	1

■대구

팀	1-3	4-6	7-9	계
두산	001	020	100	4
삼성	000	000	001	1

■광주

팀	1-3	4-6	7-9	계
한화	100	000	210	4
KIA	100	010	021	5

■사직

팀	1-3	4-6	7-9	10-12	계
NC	010	010	001	002	[illegible]
롯데	000	000	300	000	3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15일

팀	점수	점수	팀
울산	0	2	시드니
전북	1	2	요코하마

한국 축구대표팀 몸값 '메시 절반'

월드컵 출전국 중 27위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몸값이 세계 최고 공격수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경제지 이코노믹 밸류는 최근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32개국 선수들의 몸값을 책정한 금액을 공개했다. 전체 18억9077만 헤알(약 868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코노믹 밸류는 선수들의 나이와 경기력, 몸 상태, 마케팅 영향력, 대표팀 후원 업체 현황 등 총 77개 항목에 걸쳐 몸값을 책정했다.

몸값이 가장 비싼 팀은 역시나 지난 대회 우승팀 스페인이다. 스페인 선수들의 몸값은 14억6990만 헤알(약 6798억원)로 14억6070만 헤알의 아르헨티나를 근소하게 앞섰다.

선수 가운데서는 메시가 1위에 올랐다. 메시의 몸값은 4억2260만 헤알(약 1912억원)이며,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3억2830만 헤알로 뒤를 이었다.

한국 선수들의 몸값은 1억8600만 헤알(약 872억4516만원)로 메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사진)으로 1560만 헤알(약 73억원)이다.

/[illegible]기자

1 문정법조단지 문정역 직통연결!
2 분양가 3.3㎡당 1,700만원부터!
(1층)
3 상가 앞 전면 이벤트 광장!
4 슈퍼 스트리트몰 상가!
상·가·투·자
4가지를 따져라!
문정역 엠스테이트 상가분양
미래형 복합업무단지
엠스테이트
역세권의 가치에 광장의 예술을 더하다! 엠스테이트 상가분양
분양 문의 02)3432-7931
KAIT 한국자산신탁
현대건설